

## 제1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 인권상임위원회 : 학원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기관 설립제안 - 김다운 의원

요즈음 부산, 강릉, 인천 등 여러 곳에서 학교폭력의 심각한 실태가 드러나게 되면서 온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혹한지는 모두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원폭력에 대해서는 알고계십니까? 학원은 학교와 같은 사전적 정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학원폭력이라고도 일컫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학원폭력을 검색해보면 흔히 인식하고 있는 학원의 개념과는 다른 학교의 의미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학원이란 사설교육기관의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국민 대부분이 필요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안과 그 법에 따른 제도적 방안이 마련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설문조사, 상담제도 등을 사설교육기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 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한 신체 또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는 개념으로 학교 내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피해 또한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설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피해도 학교폭력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학계나 언론에서 다루는 학교폭력을 조사해보면 '학원폭력'이란 명칭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학원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인식하는 사설교육기관의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설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실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히 사설교육기관은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인이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설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미연에 방지하기에 제도적으로 매우 미흡합니다. 보통 보복이 두려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학교에서 학생들 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선생님께 알리거나 선생님이 직접 파악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아정체감이 완벽하게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중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리기관인 사설교육기관에서는 선생님들이 국가기관의 학교보다 학생들의 문제에 덜 신경 쓸 개연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사설교육기관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학생들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폭력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설교육기관은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무한한 애정을 베풀고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나 입시결과물이 학원의 존속을 좌우하기 때문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생들을 혹사시키거나 예체능입시학원 같은 경우 학생들에 대한 폭력, 폭언, 성추행 등의 인권침해가 심심치 않게 발

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설교육기관에 대한 조사가 부재하고 언론에 자주 등장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수치를 정량화하기가 힘듭니다.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리기관에서 문제를 크게 만드는 건 수입과 직결 되어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을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설령 학교에 비해 문제가 덜 발생하더라도 한 명이라도 폭력을 당한다면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은 평생 가슴 속에 상처를 간직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가슴 속 상처는 어떤 것으로도 보상하기 힘들고 그 아픔은 크기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최고 상위법인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갖습니다. 따라서 법을 준수하고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단 한 사람이라도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제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에 따라 사설교육기관에 대한 조사 및 연구기관 설립을 제안합니다. 모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에 힘써주시고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을 보호하고 빛날 수 있도록 고양시가 다른 도시들의 모범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